

구술자료 상세목록

사업명	미추홀시민기록단 ‘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’ 기록				
구술자명	김종필	면담자	김용경		
면담장소	한일원목목공	면담지원	표기자		
면담 일시	2022년 9월 13일	회차	1	시간	55분 44초
자료번호	Mi chuholCA-08-00001597				
구술 개요	<p>전라도 해남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인천에 왔음. 14~16살 때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다가 목공일이 좋아서 배다리로 향함. 모형배 만드는 기술과 조각을 배워 송의동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함. 목공으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았고 기술을 깨우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림. 지금은 교회 용품 작업을 하고 있음.</p>				
주요 색인어	<p>부모님, 이사, 모형배, 서예, 배다리, 나무, 조각, 성격, 실력, 철공, 청천동, 그림, 목간판, 시간, 친목, 이쁘다, 기술, 목공, 포장 박스, 납품, 창조, 교회 용품, 행복, 스승, 소비자의 마음, 시간, IMF, 안정</p>				
구술 상세목록 내용				시간	관련 파일(비공개)
1. 김종필 공예가 가족의 인천 정착				00:01:23~ 00:04:15	▷ 활동기획안 ▷ 구술활용동의서 ▷ 개인정보동의서 ▷ 음성파일 ▷ 녹취문
- 전라도 해남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인천에 왔음. - 아버지 보일러 기술자였음. - 16살 때부터 일을 함.					
2. 목공기술을 배우게 된 동기				00:04:16~ 00:09:39	
- 80년, 81년도 쯤에 한 2년간 모형배 만드는 기술을 배움. - 글씨를 너무 좋아해서 배다리를 거쳐 송의동으로 이사옴. - 서예학원을 다님. - 일도 없고 실력도 없었는데, 여러 가지 기술을 응용해서 연구를 하다보니 나에게 맞는 일이 옴. - 돈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끝까지 매달려 보자 해서 한 게 벌써 40년					
3. 젊은 시절 목공일을 하면서 터득한 교훈				00:09:39~ 00:13:50	
- 배다리에서 처음 자리를 잡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낌. - 일을 빠르고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눈에 마음에 들게끔 일을 하는 것이 임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음. -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정확히 해줘야지 발전할 수 있음.					
4. 청년 시절 삶의 질곡				00:14:28~ 00:20:47	
- 14~16살 때 철공 일에 뛰어듦. 차가운 기계가 싫어서 도망나옴.				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천동 목공소에서 무선전화기 박스 만들. 한 달을 일했는데 돈도 못받고 나옴. - 부평 4공단에 취직함. 3년 일하다가 짤림. - 동보전기에서 1~2년 일함. 슈퍼마켓에서 6개월 배달함. - 제대하고 미군 부대 박스가 오면 나무 만지는 일을 했는데, 이 일이 너무 좋아서 배다리로 감. 		
<p>5. 배다리 목공일에서 목공 장인의 맹아(萌芽) 발현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런 나무는 어디서 파냐고 물어봤더니 배다리에서 판다길래 배다리로 감. - 사장님이 균함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만들. 3일에 하나씩 만들어 주니까 남들보다 빨리 만든다고 취직시켜줌. - 목간판 조각을 혼자서 터득하며 조금씩 배움. - 그러다 보니 이 직업이 너무 좋아서 목공일을 시작하게 됨. 	<p>00:20:54~ 00:25:48</p>	
<p>6. 송의동 목공가게 운영 속 깨우침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다리에 있던 가게가 헐리고 송의동으로 이사오면서 개인 가게를 했음. - 개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돈 버는 것이 쉽지 않았고, 목공의 과정을 깨우치는데 25년 걸림. - 지금은 항상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, 일이 많아서 좋음. 	<p>00:26:13~ 00:28:28</p>	
<p>7. 목공 세월 속에 느끼는 기쁨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 정말 이쁘게 만들었네 그 소리 한 번 듣고 싶어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임. 	<p>00:28:48~ 00:33:19</p>	
<p>8. 목공업 반백년 하면서 찾은 내 장기(長技)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옛날에 배다리 목공소의 목수가 톱질을 하면서도 다섯 수를 앞서 보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일을 정말 잘한다 생각했었음. - 일이 안 들어오면 목공은 돈 벌기가 힘들. - 한미반도체 포장 박스, 한라중공업 배 간판, 골프장 일 등 들어오는 일들을 다 하다 보니 만드는 일이 잘 맞아서 너무 좋고 발전이 되었음. 	<p>00:33:22~ 00:40:02</p>	
<p>9. 목공을 통한 창조의 매력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가 만든 물건을 소비자가 받았을 때 행복해하고 좋아했을 때, 손님이 와서 내 표현을 빨리 이해할 때 행복하고 목공의 매력이라고 생각함. - 스승은 없고, 배다리 목공사 사장님을 존경함. -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거의 80%가 교회용품 - 우연히 좋으신 형제분들 사장님 덕분에 교회 용품 작업을 하게 됨. 	<p>00:40:13~ 00:48:22</p>	



10. 고통과 외로움이 장인을 만들다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소비자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주문 오버된 일이 많았음.- 뭐 하나 만들 때 단순하게 앞면만 보고 만들어서 실수를 함.- imf 때는 그래도 가게세를 낼 정도로 벌었음.- 어려운 시절 누구나 고통과 외로움으로 삶.	00:48:25~ 00:55:16	
11. 마무리 및 면담 영상 안내	00:55:17~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1차 면담 마칩.	00:55:42	